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 스승님, 인간이 악행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승: 모든 악행은 참된 앎[善]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제자: 그렇다면 참된 앎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 [ ] ㉠

- ① 명예나 부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네.  
② 현실적 유용성에 따라 옳고 그름을 인식해야 한다네.  
③ 감각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한다네.  
④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어야 한다네.  
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며 각 개인이 가치 판단의 기준임을 알아야 한다네.

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의 행위는 항상 선[善]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최고선 곧 행복이다. 행복한 삶에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필수적이다. 품성적인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그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간을 의미한다.

<보 기>  
ㄱ. 반복을 통한 습관화가 지성적인 덕을 형성한다.  
ㄴ. 최고선은 초월적인 것이며 이상 세계에만 존재한다.  
ㄷ. 이성에 기초한 도덕적 삶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  
ㄹ. 실천적인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중용인지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사회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 기능의 확장은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을: 국가의 부[富]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창출된다. 즉,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갑: 생산 수단의 완전한 공유를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ㄴ. 갑: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ㄷ. 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ㄹ. 갑, 을: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유 경쟁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지[知]는 아는 것[識]이다. 나의 지식을 미루어 지극히 하여 그 아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을: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써 각각의 사물의 이치를 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나의 입장은 마음과 이치를 하나로 하는 것일 뿐이다.

<보 기>  
ㄱ. 갑: 격물[格物]이란 마음의 일을 바로 잡는 것이다.  
ㄴ. 갑: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앎이 극진해진다.  
ㄷ. 을: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다.  
ㄹ. 갑, 을: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실천 능력을 타고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삶의 목적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숙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가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정직, 근면, 정의 등도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적이 아니라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들입니다. 도덕적 지식의 가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입니다.

- ① 학문의 유용성보다는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② 도덕적 선은 현실적 삶과는 무관한 가치이다.  
③ 지식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④ 윤리와 도덕은 고정 불변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⑤ 도덕규범은 보편타당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서로 신약(信約)을 맺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한 사람 혹은 합의체에 양도함으로써 생성된 인격체이다. 이 인격체가 바로 주권자이며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신민(臣民)이 된다.

을: 사람들은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암묵적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한다. 하지만 대표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사람들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① 갑: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 간의 합의로 형성된다.
- ② 갑: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민의 의지를 대행해야 한다.
- ③ 을: 자연 상태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된다.
- ④ 을: 국가에 복종할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된다.
- ⑤ 갑, 을: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7.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 적합한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진 어떤 시민이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순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복합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가상적 상황을 통해 단일한 분배 원리를 도출해야 하는가?
- ② 모든 사회적 재화는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 ③ 모든 사회에서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분배 원칙을 마련해야 하는가?
- ④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⑤ 특정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8.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먼저 깨치고 나중에 수행한다는 것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 알지만 그것이 햇빛을 받아 녹아야 물이 되는 것처럼, 범부(凡夫)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법력(法力)으로써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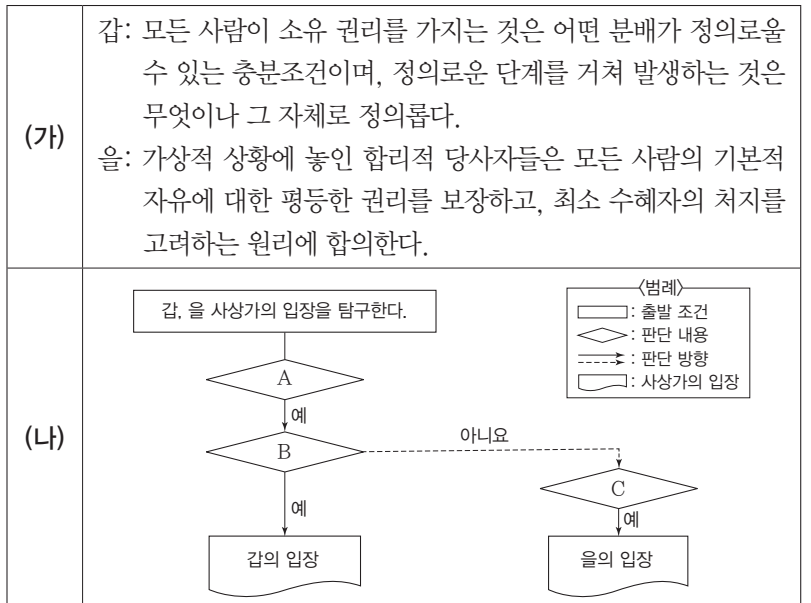
을: 하나의 마음[一心]이란 무엇인가?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라 한다.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진리가 가장 참되고 헛되지 않아 스스로 아는 성품이 있으니 마음이라고 한다.

<보기>

- ㄱ. 갑: 자신의 본성을 깨쳤더라도 수행이 필요하다.
- ㄴ. 갑: 선정(禪定)과 지혜(知慧)를 함께 닦아 나가야 한다.
- ㄷ. 을: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ㄹ. 갑, 을: 경전과 교리의 공부만으로 깨달음이 가능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 ㄴ. B: 최소 국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국가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ㄷ. C: 경제 활동에 있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 ㄹ. C: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자유를 차등 분배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에만 모두 '✓' 표시를 한 학생은?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해야 한다. 정치권력과 철학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고 나머지 한쪽을 거들떠보지 않는 작태를 철저히 금지하고 그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절제는 국가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	✓		✓	
각 계층의 역할 교환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	✓	✓
감정과 욕망을 제거한 이성적 삶이 정의로운 삶이다.	✓			✓	✓
이성으로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리는 인간이 정의로운 인간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고대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 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어 어지럽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성왕이 예(禮)를 제정하였다.

을: 사람들은 모두 불인인심(不忍人之心), 즉 남에게 차마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갑: 사람은 누구나 인의예지의 덕을 타고난다.
- ② 갑: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노력하는 행위의 결과이다.
- ③ 을: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 ④ 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 ⑤ 갑, 을: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12.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불멸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진정한 즐거움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숙명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져다주지 않는다.

- ① 갑: 죽음이나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야 한다.
- ② 갑: 공적인 삶을 회피하고 작은 공동체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을: 정신적인 관조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을: 자연의 섭리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⑤ 갑, 을: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

13. 다음 한국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본연지성은 오로지 이(理)만을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기(氣)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 기 가운데 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주로 한다거나 기를 위주로 한다거나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단과 칠정도 서로 나눌 수 없다. 사단은 오로지 이만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① 사덕은 인간의 감정으로 드러난다.
- ② 기질이 맑은 것은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 ③ 사단을 실천해야 인의예지의 덕이 형성된다.
- ④ 기에 운동성이 있듯이 이에도 동정(動靜)이 있다.
- ⑤ 사단과 칠정은 각각 그것이 유래하는 근거가 다르다.

14. 다음 중세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즉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오직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고 그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에만 가능하다.

- ①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논증될 수 없다.
- ② 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다.
- ③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조화로운 자연 그 자체이다.
- ④ 완전한 행복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⑤ 덕을 쌓아도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15.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갑: 현실을 고통이라 자각하고 고통의 원인을 잘 알아 끊어 버리며, 열반을 얻을 수 있음을 자각하여 바르게 수행한 사람은 험난한 어려움을 건넌 현명한 성자요, 성인(聖人)의 깃발을 바로 세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p> <p>(가) 을: 참된 사람[真人]만이 참된 앎을 지닐 수 있다. 옛날의 참된 사람은 적은 일에도 거스르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일을 피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으며, 잘되어도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무명(無明)과 애욕을 없애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ㄴ. B: 삶과 죽음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다.  
 ㄷ. C: 분별적 지혜를 통해 만물의 동등성을 깨달아야 한다.  
 ㄹ. C: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소요(逍遙)에 힘써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6.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다.
- ② 도덕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 ③ 의무 의식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다.
- ④ 도덕 명령은 사회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⑤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양립할 수 없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덕들은 실천과 개인적 삶이 필요로 하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유지한다. 자아에 대한 서사적 관점에서는, 나의 삶의 역사는 나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다.

을: 자연적 배려의 관계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선(善)이라고 자각하는 상태와 동일시될 것이다. 우리는 배려 관계 속에 있고 배려자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고양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보 기〉

- ㄱ. 갑: 도덕은 공동체의 전통과 삶의 양식에서 비롯된다.
- ㄴ. 갑: 행위자의 성품보다는 도덕 법칙의 정립을 중시해야 한다.
- ㄷ. 을: 공감이나 관계성보다는 정의와 자율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
- ㄹ. 갑, 을: 인간관계와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8. 고대 중국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을: 최상의 덕은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하급의 덕은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인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義)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禮)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된다.

- ①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인가?
- ②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인가?
- ③ 인의(仁義)의 실천을 통해 덕을 실현해야 하는가?
- ④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⑤ 통치자의 관여가 없어야 백성들이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정서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공감을 통해 우리의 시인을 받는다.

을: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복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① 갑: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 ② 갑: 이성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다.
- ③ 을: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쾌락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 ④ 을: 행위자의 동기가 행위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 ⑤ 갑, 을: 옳은 행위는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해서 정당화된다.

20.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갑: 사람의 성(性)은 단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다. 선을 좋아함으로 해서 측은과 사양의 마음이 있게 되며, 악을 싫어함으로 해서 수오(羞惡)와 사비(是非)의 마음이 있게 되며, 그 네 가지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

을: 사단과 이(理)의 관계는 칠정과 기(氣)의 관계와 같다. 그 발(發)함에 각각 맥락이 있고 그 이름도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사단, 칠정은 그 주(主)된 바에 따라 이와 기로 나누어 연결시킬 수 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인간의 본성을 마음의 기호(嗜好), 즉 마음의 성향이라고 보았으며, ㉡인의예지의 덕은 삶 속에서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을은 ㉢인간의 본성이 하늘이 부여한 이치라고 보았으며, ㉣인간의 본성에 인의예지의 덕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갑이 사단을 선천적인 것으로 본 반면, 을은 사단을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